

“트럼프, 김정은과 11월 정상회담 추진”

WSJ “中 APEC 계기로 회동 가능성
한미훈련 축소도 대화 의지 제스처”
방한 왕이 “美, 대북 적대정책 바뀌야”
합참 “한미 UFS 조기종료” 공식발표
北, 트럼프 언급 없이 “자위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 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도 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보여주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그는 17일엔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정과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도 회담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실제 회담 진행은 어려웠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 특히 다음 달 24일 미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김 위원장이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5년 만에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李,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과 靑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후보자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주스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호석 대통령비서실장, 송영길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홍익표 정무수석. 이날 만찬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청와대 제공

을 가졌다. 그는 회담 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문제”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선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뜨거운 담판’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비핵화보단 핵동결이나 군축 등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던 점은 부담이다.

한편 한미는 17~2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례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는 미 측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UFS를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예정된 1부 ‘방어’ 작전 훈련만 진행하고 2부 ‘반격’ 작전 훈련은 취소한 것이다. 미 전쟁부(국방부)도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UFS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9일 UFS에 대해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논평 주체도 통신사로 낮춰 대미 도발 수위를 조절했던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조동주·최혜령 기자
▶A3·4면에 관련기사

원달러 환율 1300원대 11개월만에 가장 낮아

내달 연준 금리동결 기대 등 영향
코스피, 미국채금리 뛰자 5.8% 폭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져 원화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하락폭이 가파를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채산성을 떨어뜨려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시장금리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보다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여 만이고, 저점으로는 지난해 9월 24일 이후 가장 낮았다.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 국내 수급 요인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8월 말 법인에 중간에 납을 앞둔 기업들이 환전을 늘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1300원대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98.66포인트(5.80%) 하락한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3%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기록을 쓰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코스닥지수는 1.17% 하락한 824.46에 마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A2면에 관련기사

김민석 “내란공범 자청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속 사퇴 압박
“사법농단 계기 사법개혁 시작할 것”
與 일각 “탄핵 포함 거취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언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뭉뚱 짓을 하느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비판

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두고 “현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외) 협의했지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

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해선 (탄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요구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54년만에 폐지

성장률 등 반영 개편안 이번주 발표
내년 교부금 100조→80조 줄어든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불어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종=김수연 syeon@donga.com/김수현 기자
▶A2면에 계속

카시아 속초 전용 객실 특별분양!! 반안그룹 5성급 호텔

반안그룹의 프리미엄 휴양 라이프
마감임박 [등기이전 소유권 + 15년 후 연장 or 반환 선택] 멤버십 클럽

동해를 내려다 보며 경험하는 세계적 품격의 안식처
반안그룹 카시아속초

- 평생회원권**
객실, 스파, 조·석식 특별우대
- 평생 연회비 면제**
한번 납입 후 평생 면제
- 개별 등기 이전**
내 명의로 안전하게 소유권이전
- 연간 30일 사용**
기명 30일, 무기명 20일 이용

아침 7시부터 전화상담 가능
일요일/공휴일 정상 근무/예약제 운영

대표 **02)6081-5556**

자세한 확인
QR로 확인하세요